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수준 높이고 싶다”

●‘고관절 분야명사’ 윤택림 전남대병원 교수 정년퇴임

1992년부터 근무...인공관절 수술 등 1만여건 집도
55개 특허 출원도...명예진료교수로 진료·수술 지속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첨단재생의료법으로 허용된 만큼, 난치질환 치료와 항노화(안티에이징) 연구에 힘써 재생의료 수준을 일본보다 높이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등 고관절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얻은 윤택림(사진)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31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정년퇴임했다.

윤 교수는 26일 “오랜 기간 전남대학교 교수, 전남대병원 겸직교수로 재직하면서 의학교육과 연구에 헌신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 학교와 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것이 커다란 행운이었다”

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지난 1992년부터 전남대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윤 교수는 1만여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2004년 호주에서 개최됐던 두부위 미니절개에 의한 인공관절 시범수술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많은 국가의료진 수백여명에 새로운 수술법을 교육하고 전수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고관절 재치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맞춤형 3D프린팅 임플란트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윤 교수는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271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학술연구와 더불어 고관절 수



술법, 수술기구를 포함한 의료기기 등에 관한 5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다.

국내 정형외과 전문의 중 가장 많은 보건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 중 차세대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광주시테크노파크 부지에 센터를 건립,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에 지원되는 임상 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중단됐던 줄기세포 관련 연구도 첨단 재생의료법 시행으로 다시 시작했다.

윤 교수는 퇴임 후에도 전남대병원에서 명예 진료교수와 재생의료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진료·수술·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교수는 “줄기세포, 엑소좀(exosome), 면역세포 등을 이용한 난치질환 치료와 병 예방에 중요한 항노화 관련 연구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현재의 열정으로 새로운 역사를 좀 더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고흥경찰 ‘주민 함께하는 시골경찰학교’ 운영

고흥경찰서는 26일 “고흥군 동강면 병동마을 효나누리주간복지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시골경찰 학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함께하는 시골경찰 학교는 농동과출소가 도양읍 평화마을을 시작으로 관내에서 매월 1회 실시하며, 흥경찰서 범죄예방과 함께 군 전체로 확대해 전국 초고령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경찰활동’이다.

프로그램은 웃음 전파 강의,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법 등이 있으며, 김형성 농동과출소 경감이 판소리 한마당을 통해 높은 호응을 유도했다.

효나누리주간복지센터 관계자는 “시골경찰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몰랐고 경찰관의 재능기부도 신선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고흥=최복환 기자



나주경찰 ‘어르신 대상 범죄 공동대응’ 협약

나주경찰서는 “최근 동신대학교, 나주대학교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초고령사회 진입 및 노인 대상 범죄 증가에 따른 협약 체결로 상호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갖고 노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범죄 피해 어르신에 대한 위기 지원과 피해 발생 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범죄 피해 노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노인범죄 관련 신고 시 신속한 출동, 범죄 행위자에 대한 제지·분리, 공정한 수사,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에 힘쓸 것”이라며 “유기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제 해결 및 노인 대상 범죄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영광경찰, 협력단체 연합회 발대식

영광경찰서는 26일 “전날 ‘주민참여·정성치안 활성화’를 위한 협력단체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최성규 경찰발전협의회장, 나은주 여성상장지킴이 대표, 조미녀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 정계성 경유회 감사, 이인재 자율방범연합회장, 박경남 모범안전자회장, 정덕진 집회시위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주민간담회, 통계 공개·소통방개설 등 주민참여·정성치안 추진 현황 및 주요 우수사례에 대해 얘기를 나눴으며, 사회적약자 일상회복을 위한 ‘봄봄봄 지원단’도 소개했다.

또 생활지원사 간담회 시 치안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네이버 밴드 등 소통창구 확보 등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더불어 연합회 회칙에 따라 연합회장과 사무국장을 선출했으며 참여자인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영광=김동규 기자



유태승 신안부유식품력협회 제2대 회장 취임

신안군은 26일 “전날 자문단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유태승 (사)신안부유식품력산업협회 제2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박우량 군수, 신안군의회, 주한 덴마크대사, 해상풍력 분야 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구즈만 피가르(OW코리아 대표) 제1대 회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유태승(COP코리아 대표) 제2대 회장은 “신안 해역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공동된 목표를 뜻에 같이하고 있는 신안부유식품력산업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영광”이라며 “우리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빨리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우량 군수는 “1대 회장사인 OW코리아의 노고에 감사하고, COP코리아에 대해 격려한다”며 “발전사, 신안군, 지역민 등이 협력해 신안 해상풍력 발전을 성공시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자”고 말했다.

한편 (사)신안부유식품력산업협회는 흑산도 권역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해 주민과 기업인들의 수용성 확보, 계통연계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결성했다.

/신안=양훈기자



전남인재개발원, 도민·공직자 역량 강화 MOU

호국기념관·문화재단·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과 협력 모색

전남도인재개발원은 26일 호남호국기념관, 전남문화재단,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과 함께 도민과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내 교육연수기관 공동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 강의 교과목 편성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 강사 상호 지원 ▲각 기관의 교육자원과 콘텐츠를 적극 공유·홍보 등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도민 참여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호남호국기념관은 역사 교육 제공,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공

유,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은 지역 생태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환경교육 제공 등을 지원한다. 이로써 전남도내 인재개발원은 호국·문화·예술·생태 등 다방면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기반을 확보했다.

4개 기관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강의를 개설하는 등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윤연화 인재개발원장은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보다 알찬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기관 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미래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한 도민과 공직자 교육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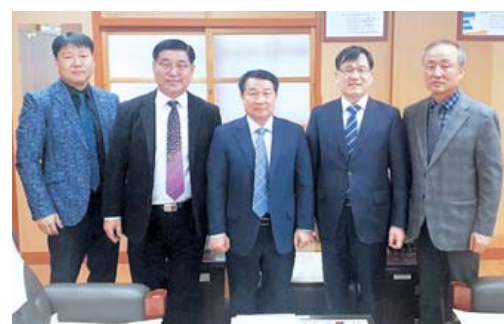
광주 양동초교 13회 동문, 모교에 발전기금 전달

광주 양동초등학교 13회 동문들이 1973년 졸업 이후 50여년 만에 모교를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교직원들과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박준수 동문회장 등 졸업생들은 26일 학교를 방문, 임종진 교장 등 교직원을 면담하고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금일봉을 학교 발전에 써달라며 기탁했다.

박 회장은 “재학 당시 양동은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육성희비도 내기 버거울 만큼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많았다”며 “그 시절의 기억들이 오늘날 모교와 후배 사랑으로 이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13회 동문들은 7-8년 전부터 총동창회를 통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모교를 찾아 뜻을 전하기로 했다.

한편 13회 동문으로는 조덕선 SRB사랑그룹 회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이노범 치과과의사 등이 있다. /김대기자

순천교육지원청, 울산초 늘봄학교 현장 방문

순천교육지원청은 26일 “올해 전남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늘봄학교 운영 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고 밝혔다.

순천울산초등학교는 4개 늘봄교실과 초등학교 1학년 적응기에 필요한 매직스쿨, 창의놀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1-6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AI, 지역특화 등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동근 교육장은 늘봄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참관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봤다.

허 교육장은 “늘봄학교 안정적 안착을 위해



노력에 준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포용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여수 LG화학 화성품공장 봉사단 ‘봄꽃심기’ 봉사

여수 LG화학 화성품공장 봉사단의 봄꽃 심기 봉사가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봉사단과 시 직원, 한영대 화공산업공학과 대학생 등 110여명이 최근 여수시 문화유산 1호인 ‘이충무공어머니사시던 곳’ 유적지에서 2천여본의 봄꽃과 ‘어머니의 정’을 표현한 목화 50본을 심었다.

또 한영대 학생 6명의 부모님을 초청, 효사랑 세족식과 함께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낭독 등으로 가슴 뭉클한 시간을 가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주재구 LG화학 화성품공장 봉사단장은 “수목 식재와 봄꽃 조성을 8년째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과 함께 소중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



다”고 말했다.

조정만 여수시 문화유산과장은 “민, 관 그리고 학생들까지 힘을 합쳐 지역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살피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을 시민들과 함께 가꿔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서해해경청 목포광역VTS ‘찾아가는 직업 설명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전날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VTS)가 우수한 해양경찰 인력 확보와 진로 멘토링을 위해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재학생 등 107명이 참석했으며 학생들의 지식, 동기, 태도 등 다양한 측면의 이해를 돕고 능동적·진취적 진로 설계 및 멘토링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 각 부서 기능과 역할 설명 ▲해상교통관제센터 목적 및 중요성 ▲2024년도 해양경찰 채용시기, 규모·절차 안내 ▲관제사 업무환경·근무형태 소개 ▲진로 설계 및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등이다.



목포광역VTS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에게 해양경찰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대해 소개했다”며 “해양경찰 홍보와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